남획·어장축소…순천만 가리맛조개 생산량 급감

작년 65t, 8년새 6.2배 줄어 멸종 위기
전남도 인공종묘 개발 수출전략화 나서

'타우린의 보고(寶庫)'로 패류의 으뜸으로 불리는 가리맛조개의 생산량이 무분별한 남획과 어장 축소 등의 여파로 해마다 가파르게 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유일의 생산지인 전남도가 인공종묘기술을 토대로 수출전략화를 꾀하기로 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유일의 염습지인 순천만에서만 채취되는 가리맛조개의 지난해 생산량은 65t으로 1995년 400t에 비해 8년새 6.2배나 줄었다. 연간 생산량은 2005년 180t, 2010년 95t으로 빠르게 감소해 왔다.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을 비롯해 필수아미노산과 철분이 다량 함유돼 빈혈 예방과 기억력 증진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진 것이 1차적 요인이다. 또 고수온 등의 환경 변화, 어장 축소 등도 생산량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11년 10월 국내 처음으로 가리맛 양식에 성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출전략화를 모색중이다.

전남도는 생산량 감소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통해 자원회복의 길을 마련했고, 내친 김에 수출상품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0.5~1㎜ 크기의 인공종묘 치패 100만 마리를 여자만 북부 용두해역에 시험살포했다. 성패채취 시기는 살포 후 1년6개월 뒤여서 올해는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도는 또 이미 성공한 양식기술을 바탕으로 내년에 도비 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까지 미흡한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순천만에 양식적지 500ha를 개발, 내년까지 인공종묘 1000만 마리를 살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300t을 생산, 수출하는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긴 주머니칼 모양이어서 잭나이프 조개라고도 불리는 가리맛은 맛이 너무 좋아 아예 이름에도 '맛'이 붙어 있다. 해물탕의 감초라고 할 정도로 아무 양념을 하지 않아도 깊고 진한 맛을 낸다. /장필수기자 bungy@

생태환경 사진전 최우수상 '동박새' 2013 제1회 전남도 생태환경 디지털 사진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희철씨(군산시)의 '동박새'. 매화꽃 꿀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동박새 한쌍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전남도 제공〉

영산강 자전거 대축전 1000여명 성황

'영산강 자전거 대축전' 행사가 지난 27일 나주 영산포 체육공원 둔치에서 나주시자전거 연합회를 비롯한 20여개 동호회 회원 500여명과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화창한 봄 햇살아래 동호인과 가족 단위로 참석한 라이더들은 나주 영산포 체육공원 둔치에서 출발해 승촌보까지 왕복하는 25㎞ 구간과, 나주대교까지 왕복 10㎞ 구간을 나눠 달리며 봄의 정취를 즐겼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주최한 이날 영산강 자전거 대축전에는 식전행사로 난타공연과 자전거 묘기 공연이 펼쳐져 박수를 받았다. 또 부대행사로 유치원과 초등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영산강을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대회가 열렸으며 황포돛배 승선체험도 함께 이뤄져 즐거운 주말을 보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지부진

쥐꼬리 지원금에 홍보부족…작년 신청 2500동 그쳐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펴고 있지만 적은 지원금과 홍보부족 등으로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등으로 대량 보급된 도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주택 6만3000동, 축사와 창고 5만3000동 등 모두 11만6000동에 달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으로 463가구(사업비 17억원)를 철거한 데 이어 지난해 1769가구(34억원), 올해 2557가구(61억원)를 뜯어낼 계획이다.

철거·처리비는 120㎡ 기준으로 240만원이 지원되며 국비 40%, 도비 10%, 시군비 50%로 분담한다.

그러나 집주인 거주하는 지붕 철거는 주택개량 시기와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다 철거 후 새 지붕 설치비는 집주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새 지붕 설치비용은 대략 35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민들의 신청 물량도 2500여동에 그치는 등 한계에 봉착했다.

여기에 철거비 지원 대상이 주택만 해당하고 축사와 창고 등은 제외된 점도 문제다.

또 기존에 철거한 폐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방치되는 등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 처리 지원비 상향,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학생 학자금 정부대출 전남도 이자 2.9% 지원 내달말까지 신청 접수

전남도는 정부에서 대출받은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5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금리 2.9%를 전남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대학생 4500여명이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전남도내 대학교 재학생이나 도내 고교를 졸업한 후 다른 시도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완도교육청 찾아가는 학폭예방 캠페인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흥상)은 최근 완도여객선터미널 및 슬로시티 청산도 일대에서 도서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모두의 참여로 해결되는 학교폭력'이란 주제로 실시됐으며 완도를 찾은 전국의 관광객과 발길이 쉽게 닿을 수 없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완도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준비한 언통심통한 부모교육, 전남도교육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밥상머리교육 홍보지와 더불어 학교폭력근절에 함께 동참하자는 문구를 새긴 음료수, 과자 등을 나누어 주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슬로시티 청산도민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1대1일 대면으로 직접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참여를 호소했다.

완도교육지원청은 5월 3일부터 완도일대에서 열리는 장보고 축제에서도 학교폭력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여수수산시장 새 단장후 매출 30% 늘어

9억원 들여 간판 바꾸고 아케이드 설치
쾌적해진 전통시장…해산물 쇼핑코스로

45년 전통의 여수수산시장이 새롭게 단장됐다.

여수시는 28일 "총사업비 9억3000만원을 투입, 지난해 7월부터 수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실시해 지난달 말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대화된 아케이드 출입구의 간판 위에는 선박 '키' 모형을 설치, 배 형상으로 디자인해 세계 4대 미항 여수의 특색을 담았다. 〈사진〉

또 상가 간판을 일제히 정비하고 소방·전기·환기시설 등을 갖춰 상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여수수산시장은 여수시민들이 애용하는 것은 물론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각종 해·수산물을 구입해가는 단골 쇼핑코스로 이번 새 단장을 계기로 여수 필수쇼핑코스로 각광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수산시장의 상인들은 "허름한 천막에서 깔끔한 아케이드로 바뀌니 시장이 전체적으로 깨끗해졌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게 돼 친절과 미소가 절로 나온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화된 시설에 관광 마케팅이 더해져 최근 여수수산시장의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비와 바람에 강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태풍에도 끄떡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에는 여수수산시장 외에도 교동시장, 서시장 등 16개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수 전통시장 홈페이지(http : //umarket.yeo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수수산시장은 1968년에 현 위치인 여수시 교동 680번지에서 개장해 지금까지 45년 동안 여수시민과 관광객의 먹거리장터로 자리매김한 명품 수산물 전통시장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산동문화관광형시장 구례군 입점자 모집

구례군이 산동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특색있는 입점자를 공개 모집한다.

산동면 관산리 온천 맞은편 부지 1만3582㎡에 올 12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산동문화관광형시장에는 지역생산 농특산품 판매장과 장류 등 가공식품 판매장, 전통공예 체험장, 별공원, 오토캠핑장, 주차장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산동문화관광형시장을 문화관광을 즐기며 쇼핑을 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테마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특색 있는 상품을 판매할 약 200여 명의 입점자를 찾는다.

모집기간은 오는 5월16일까지로, 5월12일에는 산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장경영진흥원 책임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1차 평가를 거쳐 상인 의식, 성장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2차 면접심사로 입점 여부가 결정된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곡성 향토음식 한자리에 곡성군은 지난 25일 곡성문화센터에서 음식 관련 종사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음식개발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선보인 향토음식은 곡성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토란, 능이버섯 및 흑돼지를 활용해 만든 흑돼지오향쌈, 능이버섯잡채, 토란죽을 이용한 깍두기 등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보성읍사무소 신청사 기공…10월말 준공

보성군은 지난 24일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읍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성읍사무소 신축 공사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

보성읍사무소는 1963년 건립된 노후 건물로 균열로 인해 우기 시 빗물이 새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보성읍 신청사는 오는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보성리 902-4번지인 현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378㎡에 회의실, 사무실, 민원상담실, 읍장실, 농민상담소 등을 갖추게 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철쭉꽃 물든 섬진강 기차마을에 놀러오세요

내달 1~5일 대축제

곡성군은 아름다운 섬진강 철길따라 붉게 물든 철쭉꽃을 배경으로 오는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 '섬진강 기차마을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1일 군민의 날을 시작으로 곡성예술제, 전국 섬진강 어린이 동요·가요제 등 지역 주민와 관광객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1일에는 곡성군의 11개 읍면별 특색 있는 길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지구를 굴려라, 볏가마 나르기 등 주민 화합 마당과 우리마을 이야기 경진대회 및 축하공연이 열린다. 2일 곡성예술제에선 곡성합창단, 섬진강도깨비마을사람들 등 11개 지역 예술단체와 자매결연 지자체 예술단의 초청공연 등이, 3일에는 축구, 테니스 경기 등 곡성거창한마음생활체육대회, 섬진강둘레길 주민건강걷기 등이 이어진다. 4일과 5일은 군악대 및 퓨전국악 등 어린이날을 기념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섬진강변의 철쭉꽃이 이번 축제 기간에 가장 화려하게 필 것으로 예상돼 아름다운 철쭉과 다채로운 문화행사 체험 등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제3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오는 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1004 장미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새얼굴

"군민행복 직결 4대악 척결에 혼신"

김 균 구례경찰서장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통해 신뢰 받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균(56) 구례경찰서장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구례경찰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평소 융화와 화합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등학교와 전남대를 졸업하고 1984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성남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찰청 외사국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조직 내에서는 외사범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취미는 테니스, 부인 홍성임(50)여사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